

배포 일시	2022. 11. 8.(화)		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	책임자	과 장 장구중 (044-201-3230)
	교통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김남철 (044-201-3868)
보도일시	2022년 11월 9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9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11월 11일(제13회 보행자의날), 함께 걸어가자 - 익산 배산체육공원에서 기념식... 일반시민 제한 없이 참여 가능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월 11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,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13회 ‘보행자의 날*’ 행사를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에서 10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.
 - * 2010년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먼지 증가, 제한적인 에너지의 위기 도래, 환경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국가기념일
 - 국민의 보행문화 의식향상을 돕고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, ‘걸어 가자’ 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올해 보행자의 날 행사는 일반시민,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, 익산부시장 등이 참여하며 걷기 행사, 걷기 챌린지, 교통안전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.
 - 특히, 그간 건강 걷기대회, 주민주도형 야외걷기대회 등 많은 걷기 문화행사와 보행환경을 위한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온 익산시에서 진행하게 되어 이번 행사의 의미가 깊다 할 수 있다.
- 보행자의 날 행사(11.11일)에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, 시민 참가자들의 걷기 행사,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된다.
 - 행사에 모두 참여하여 스탬프를 획득한 시민에게는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고, 경품권을 배부받은 시민들 중에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.

- 또한, 일반 시민들은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기념하여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걷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.

-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“보행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이동 방법이고,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자 운동의 하나라고” 하면서,
 - “코로나-19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건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걷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, 정부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

